

문화광장



김연주 문화공간 양 기획자

미술 기록의 수집과 보존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가 지난 4월 개관했다. 제주도에 미술아카이브가 생기길 바라고 있었기에 무척 부러운 일이었다. 미술아카이브의 수집 대상은 무척 광범위하다. 미술관이 주로 미술 작품을 수집한다면 미술아카이브는 미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수집한다. 작품과 관련한 스케치, 모형, 작가 노트, 참고 자료뿐만 아니라 작가와 관련한 책, 수첩, 편지, 앨범, 음성 파일 등이나 전시와 관련한 포스터, 엽서, 도록, 사진, 비평문, 기사 등도 미술 아카이브의 수집 대상이다. 또한

미술아카이브는 비평가, 큐레이터 등의 개인, 협회 등의 미술 단체, 미술관과 같은 기관의 기록물에도 관심을 두고 수집한다. 미술 작품 이외의 이러한 미술 기록을 수집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우선 미술 작품의 의미를 더 잘 파악하게 하고 내용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미술 작품을 역사, 문화, 사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수집된 기록물을 바탕으로 미술 작품 연구가 활발해질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미술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미술계를 성장시키는 힘이 된다. 또한 일반인도 다양한 자료에 쉽게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고 그만큼 미술애호가 가 늘어날 확률도 커진다. 마지막으로 하나면 더 언급하자면 작품을

들러싼 다양한 유산을 미래에 전달할 수 있다. 이렇듯 아카이빙은 단순히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관만 하는 일이 아니다. 동시대인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향해서도 소통하는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뉴욕현대 미술관과 게티미술관, 영국의 테이트 갤러리 등 해외의 주요 미술관들은 이미 1970-80년대부터 미술아카이브를 구축해 충실히 미술 기록을 수집해 오고 있다. 2000년에 설립된 홍콩의 AAA(Asia Art Archive)와 같이 미술관 소속이 아닌 독자적인 미술아카이브도 생겨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미술아카이브협회의 활동도 활발하다. 국내의 경우에는 첫 미술아카이브가 1999년에 민간에서 설립됐다. 미술 비평가 이규열의 기증에 계기가 돼 삼성미술관에서 한국미술기록보존

소를 만들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미술아카이브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5년에 공공기관인 인사미술공간이 아카이브를 만들면서 국내 미술계에도 아카이브 개념이 확산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13년 미술연구센터를 설립해 미술아카이브를 구축했다. 제주도에서는 2020년에 국립현대미술관의 지역미술관 협력 사업인 '지역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아카이브 구축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다. 이제는 이러한 일회성 사업을 넘어 제주도에서도 체계를 갖춘 미술아카이브를 시작해야 한다. 제주도 미술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재원을 마련하자. 미술아카이브 구축으로 제주도 미술계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그 가치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열린마당

'작은 소방차'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자



양승빈 제주소방서 화북119센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들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해가 갈수록 자동차 화재 관련 소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누구에게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차량 화재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 차량 화재는 일반적으로 운행 중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모든 화재가 그렇듯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차량 화재 소식이 많아지는 요즘 차량용 소화기 설치는 더욱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소방판매업체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KFI를 통해 '자동차 겸용 인증' 받은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차량용 소화기,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 소화기를 트렁크에 두면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운전자의 손에 닿는 위치인 운전석이나 조수석 시트 아래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현대인에게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이동 수단이다. 인제는 누구에게나 차량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예상치 못한 화재 상황으로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함으로써 미리 대비하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항공, LCC 만족도 조사 네 번째 1위

상반기 주요 평가 1위 차지

○...제주항공이 한국생산성본부(KSPI)가 주관하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저비용항공사(LCC) 부문 1위에 선정.

8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국가고객만족도 조사는 6개 항목을 기준으로 매년 실시되는데, 이중 고객 인지 가치, 고객 기대 수준, 고객 인지 품목 등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자 LCC 부문 조사 시작된 2018년 이후 네 번째 1위 수상.

제주항공 관계자는 "NCSI LCC부문"을 포함해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그린스타" 등 상반기 주요 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의 기대를 만족시키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더 연구하고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소정 기자

멸강나방 피해 예방 예찰 강화

○...서귀포시가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 발생해 사료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멸강나방에 대비해 목초지 예찰을 강화할 방침.

이에 시는 마을공동목장 18개소(2594ha), 사료작물 재배지(2721ha)를 비롯 지난해 멸강나방이 발생했던 섶밭동 일대를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나방 유충 발생 시 신속한 약품 공급으로 초기에 확산을 방지할 예정.

한혁 시 청정축산과장은 "멸강나방 예방에는 한번 발생하면 무리를 지어 작물의 잎과 줄기를 폭식해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초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멸강나방 유충에 관심을 가지고 발견 시에는 즉시 청정축산과로 신고해 신속한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 백규탁 기자

사설

공공 자원 태양광, 개발이익 공유는 당연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지면서 친환경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이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는 이유다.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화석연료를 줄여야 하는 만큼 시장수요는 무궁하다. 제주에서도 풍력·태양광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자원의 공적 관리와 개발이익 공유가 이뤄지고 있지만 태양광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3MW를 초과한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사업 허가권은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도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이 들어선다. 마라도 면적의 2.5배에 달한다. 대규모 태양광사업은 출력제한 심화를 초래해 부작용이 뒤따른다. 또 환경훼손으로 지역사회의 반발도

우려된다. 다행히 제주도가 태양광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적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사업 허가권을 이양해 이익 공유화 기금 조성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유화 기금 납부대상은 시간당 3MW를 초과한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로 한정할 계획이다. 대규모 태양광사업 공적 관리와 개발이익 공유화제 도입은 민선 8기 도정의 공약이다. 태양광은 제주의 소중한 자원인 만큼 개발에 따른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주도 당국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들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또 공유화기금에 도민 복리증진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기금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 4, 5월 비바람 피해 예사롭지 않다

어린이날 연휴 기간 장마철을 방불케 하는 비가 내린 제주지역은 기록적인 강수량으로 비 피해와 함께 항공편 차질 등 불편이 잇따랐다.

강수 기간 제주도 전역에 호우특보 및 강풍·풍랑특보가 내려졌고, 산지에는 누적 강수량 1000mm가 넘는 지점이 나올 만큼 폭우가 있었다.

특히 지난 4일 오후 6시까지 하루 동안 서귀포는 268.2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1961년 기상관측 이래 5월 중 가장 많은 일 강수량이었다. 기존 최고치는 1992년 관측된 259.8mm였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농경지 침수 및 도복(쓰러짐) 피해가 있었으며, 병해충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 환경면·한림읍·구좌읍 지역 보리 재배지 약 400ha가 도복(쓰러짐) 피해를 입었고, 애월·한림 등 서

부지역의 단호박 26ha와 초당옥수수 12ha에 피해가 발생했다.

강한 비바람으로 제주 기점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강풍 특보와 급변풍 특보로 지난 4일 항공편 243편(출발 118, 도착 125)이 결항된데 이어 어린이날인 5일에도 항공편 220편(출발 114, 도착 106)이 결항되는 등 이틀간 463편의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됐다. 연휴 특수는 실종됐다.

4, 5월 잦은 강풍과 집중호우가 예사롭지 않다. 예년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예견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비바람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봄이다 싶으면 어느새 여름이다.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부고

현우송(이스턴투자개발 상무) · 현우택(아산종합건설 이사) 어머니 밀양손씨 영신(아산종합건설 회장 · 향년 76세)께서 서기 2023년 5월 7일 06시 30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3년 5월 9일(화요일)  
▶발인일시: 2023년 5월 10일(수요일)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  
▶장 지: 교래리 가족묘지

남편 현승헌(故)  
아들 현우송 며느리 권경진  
우택 김지수

※연락처: 현우송 010-2699-0262  
현우택 010-6282-0262  
권경진 010-3289-0225  
김지수 010-7273-6022

부고

강창재(법무법인 대아 대표 변호사) 아버지 진주강공 석진(前 6.25참전유공자회 제주도지부장·향년 91세)께서 서기 2023년 5월 8일 오전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3년 5월 9일(화요일)  
▶발인일시: 2023년 5월 10일(수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에스중앙병원장례식장 3.4빈소  
▶장 지: 양지공원→해안동 선영

아들 강창재 며느리 고정숙  
창림 김순선  
창조 박지정  
창균 원계선  
딸 강창유 인희  
손자 강태규 손녀 강서혜  
동주 재현  
재영 민지  
병규 연수  
서현

※연락처: 강창균 010-3431-8539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성 명: 방 이관형(1951. 12. 05. 생)  
·최후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동로 33, 102동 205호(고성리, 서귀포성산엘에이치아파트)

상기자는 2022년 3월 15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2년 4월 25일 제주지방법원 2022노단26호로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변 제1002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정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 1. 공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 2. 신고 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풀물길 7, 103호 (외도일동, 외도경림주택)

2023년 5월 9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이 현 수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성 명: 방 이갑술(1937. 08. 20. 생)  
·최후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4길 62, 501호 (아라일동, 행복한집18호)

상기자는 2021년 10월 29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2년 4월 11일 제주지방법원 2022노단187호로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변 제1002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정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 1. 공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 2. 신고 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4길 62, 501호 (아라일동, 행복한집18호)

2023년 5월 9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이경희, 이경숙, 이경자, 이경애, 이경식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에 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특별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백

시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복비: 50,000원**

전화 010-7301-7737

강정동 카페 및 펜션 토지 매각

- 1 강정 해안도로 접 607평 (카페 A급 토지)
- 2 강정동 주택지 373평
- 3 강정 해안도로 뒤 370평 (건축높이 17m가능)
- 4 서귀포 이마트 근접 180평 (바다조망 건축가능)
- 5 월평포구 도로 근접 590평 (상가 및 펜션 건축가능)
- 6 호근동 일주도로 위 범섬 조망 180평 (주택 건축가능)
- 7 고근산 뒤 5,000평 조경 식재 (별장 건축가능)

※ 부동산중개사 아님

010-7328-1107, 010-6275-5200

택지, 상가 긴급매각

- 1) 성산포 500평 현재 70% 공사중 해안도로접
- 2) 송당리 1,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750,000원) 관광농원 입구, 송당리 마을, 2차선 접합
- 3) 종달리 6,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1,600,000원) 우도와 일출봉사이 바닷가
- 4) 시흥리 5,000평 (분할 가능) 잡초지, 일주도로 접합
- 5) 성산포 12,000평(분할 가능) 해안도로 접합

010-4820-4823 (부동산중개사 아님)